

# ‘人鬼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살펴본 魏晉南北朝 시기 鬼文化와 사회풍조\*

- 『搜神記』, 『幽明錄』을 중심으로

이 인 경\*\*

## 국문초록

『搜神記』와 『幽明錄』은 魏晉南北朝 시기를 대표하는 志怪小說의 秀作이다. 그러므로 두 작품의 ‘人鬼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이 시기의 사회풍조와 당시 사람들의 심리를 살펴보았다. 위진남북조 시기의 종교 미신과 鬼文化의 유행은 鬼 고사가 대량으로 출현하게 된 원인으로,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은 人鬼의 사랑 이야기 발전에도 영향을 주었다. 당시 지괴소설의 저자들은 동란으로 인한 불안정한 사회정치와 참담한 현실에 대한 불만을 鬼 고사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였다. 출세와 애정 문제는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 시기 지괴소설을 통해 다양하게 서술되었다. 또 사랑과 혼인은 사람들의 이상과 소망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주제이므로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했던 자유연애와 혼인에 대한 갈망은 人鬼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표출되었다. 人鬼의 사랑 이야기는 鬼를 인간과 밀접한 존재로 부각시켜 당시의 사회현실과 생활을 재조명하였기 때문에 현실성과 시대적 특징이 人神 사이의 사랑 이야기보다 훨씬 풍부하다. 그러므로 위진남북조 시기의 人鬼의 사랑 이야기는 현실성과 시대적 특징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우연한 만남-異域에서의 혼인-현실로 복귀한 남성의 출세’로 전개되는 人鬼의 사랑 이야기에는 문벌귀족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이 반영되었다. ‘생전의 연인-죽음과 還魂-현실에서 이루어진 사랑’으로 전개되는 人鬼의 사랑 이야기에는 자유연애와 혼인에 대한 갈망이 반영되었다.

[주제어] 人鬼의 사랑, 혼인, 異域공간(陰界), 還魂, 鬼文化

##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글                  | III. 人鬼의 사랑 이야기에 반영된 鬼文化와 사회풍조 |
| II. 고대 중국의 鬼文化와 志怪小說의 鬼 故事 | IV. 나가는 글                      |

\* 이 연구는 단국대학교 2021년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 단국대학교 강의전담조교수 / renjing999@naver.com

## I. 들어가는 글

魏晉南北朝 志怪小說의 인간과 異域 존재 사이의 사랑 이야기는 고대 중국소설의 특징 중 하나다.<sup>1)</sup> 특히 ‘人鬼의 사랑 이야기’는 鬼를 인간과 밀접한 존재로 부각시켜 당시의 사회현실과 생활을 재조명하였기 때문에 현실성과 시대적 특징이 人神의 사랑 이야기보다 훨씬 풍부하다. 고대 중국의 전통 관념에서 ‘鬼’는 死後 인간의 또 다른 형태였기 때문에 인간과 鬼 사이의 사랑은 人神 사이보다 실재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2)</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人鬼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위진남북조 시기의 사회현실과 당시 사람들의 심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과 鬼는 幽明, 즉 이승과 저승이라는 다른 공간의 존재이지만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인간미와 현실성이 농후하다. 鬼를 의인화하여 현실 세계 인간의 모습을 덧입혔기 때문에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거부감이 들기보다는 친근하고, 異域 존재와의 사랑으로 인해 더 신비롭고 로맨틱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괴소설의 특징 중 하나인 人鬼의 사랑 이야기를 위진남북조 시기의 대표적인 지괴소설 『搜神記』와 『幽明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당시의 사회풍조와 사람들의 인식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위진남북조 시기는 漢末 이래 鬼道の 번성과 佛敎의 성행으로 귀신을 통해 靈異한 이야기들을 전파하고자 하는 경향이 심해졌기 때문에 이 시기의 지괴소설에는 鬼 고사가 특히 많이 서술되었다.<sup>3)</sup> 위진남북조 시기는 위정자들의 권력 쟁탈과 민족 간의 대립이 끊이지 않았던 동란의 시절로, 이로 야기된 당시의 사회적 불안정과 경제적 파탄은 백성들의 비참한 생활로 고스란히 이어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현실 세상이란 목숨조차 보존하기 힘든 암담함 그 자체였다. 이 시기의 많은 지식인들 역시 사회정치적 상황과 자신들의 책임에 직면해 빈민과 방황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玄學과 淸談은 바로 당시의 사회현실에 대한 불만과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고자 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사회 풍조다. 이들을 비롯한 이 시기의 많은 지식인들은 난세에 자신의 이치를 밝힐 방법으로 혹은 안전하게 세월을 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 기이한 이야기에 자신들의 생각을 기탁해 표출하였다. 이것이 이 시기 지괴소설의 저작을 文人들이 주도하게 된 이유다.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바램을 鬼 고사를 통해 해소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이 관심 있던 출세와 애정 문제는 지괴소설을 통해 다양하게 서술되었다. 특히 사랑과 혼인은 사람들의 이상과 소망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주제이므로 지괴소설의 저자들은 人鬼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자유연애와 혼인을 갈망하던 당시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였다.

『搜神記』와 『幽明錄』은 위진남북조 시기를 대표하는 지괴소설의 秀作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작품은 모두 기이한 이야기를 통해 위진남북조 당시의 사회현실과 사람들의 심리를 다양하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

1) 張振軍, 『傳統小說與中國文化』, 廣西: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6, 99쪽 참조.

2) 臧克和外 校訂, 『說文解字新詁』, 北京: 中華書局, 2002. 「鬼部」, “사람이 죽으면 鬼가 된다(鬼, 人所歸爲鬼.)”

3) 魯迅 撰, 『中國小說史略』,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24쪽, “중국에서는 원래 巫를 믿었다. 秦漢이래 神仙說이 성행하였고 漢末에는 다시 巫風이 크게 창궐하여 鬼道가 더욱 번성하게 되었다. 이때 소승불교 또한 중국에 유입되어 점차 퍼지게 되었고, 이런 것들은 모두 귀신을 떠벌려 靈異한 것들을 일컫게 하였으므로, 쥘로부터 隋에 이르는 기간에 귀신지괴가 특히 많이 저술되었다(漢末又大暢巫風, 而鬼道愈熾; 會小乘佛敎亦入中土, 漸見流傳. 凡此, 皆張皇鬼神, 稱道靈異, 故自晉訖隋, 特多鬼神志怪之書.)”

성과 시대적 특징이 풍부하다. 내용 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유명록』은 현실 속에서 환상을 보는 듯, 평범한 속에서 기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 『수신기』에 비해 이야기의 현실성이 농후하다.<sup>4)</sup> 『수신기』가 대부분 옛 異聞들을 수집해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면 『유명록』은 前人, 그러니까 『列異傳』, 『異林』, 『搜神記』 등 대부분 晉人들의 서적을 더 많이 수집해 기록했기 때문에 시대적 느낌과 현실성이 더 강렬하게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 시기 지괴소설의 대표작 『수신기』와 『유명록』의 人鬼의 사랑 이야기를 함께 검토해 보고자 한다.

위진남북조 지괴소설의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이래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인간과 異域 존재와의 사랑 이야기에 관한 연구도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人神, 人鬼, 人妖를 주제로 한 이야기를 위진남북조 시기 지괴소설 작품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거나, 당시 지괴소설 중 작품 하나를 선택해 人神, 人鬼, 人妖 주제와 작품을 연계해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연구의 주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人鬼의 사랑을 주제로 한 연구는 대부분 일정한 주제를 정해 이 시기 지괴소설 작품들을 분석하거나 작품을 유형으로 분류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5)</sup> 작품 연구로는 『수신기』와 관련된 연구가 가장 활발하다. 『유명록』은 『수신기』에 비해 그 연구가 미비한 편이기에, 본고에서는 『유명록』을 『수신기』와 함께 참고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人鬼의 사랑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작품을 유형이나 특징으로 구분해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야기의 전개를 중심으로 내용의 특징을 살피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수신기』와 『유명록』에서 人鬼의 사랑 이야기 작품을 선별해 중심 모티브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이야기 전개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분석해 위진남북조 시기의 사회풍조와 당시 사람들의 소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위진남북조 시기 人鬼의 사랑 이야기 발전에 바탕이 된 고대 중국의 鬼文化와 鬼 고사에 대해 살펴보고, 『수신기』와 『유명록』에서 선별한 人鬼의 사랑 이야기 작품을 중심 모티브로 구분해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볼 人鬼의 사랑 이야기 작품은 『수신기』의 「駙馬都尉」, 「崔少府墓」, 「漢談生」, 「紫玉」, 「王道平」, 「河間郡男女」와 『유명록』의 「賣胡粉女」, 「龐阿」다.<sup>6)</sup> 이들 작품을 이야기 결말의 복선 역할을 하는 모티브를 중심으로 ‘異域에서 인연 맺기’와 ‘還魂을 통한 현실에서 인연 맺기’로 구분하여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이역에서 맺은 사랑과 환혼을 통해 이루어진 사랑은 이야기의 진행 방식이 다를 뿐 아니라 이야기에

4) 李劍國, 『唐前志怪小說史』,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1, 486쪽 참조.

5) 위진남북조 지괴소설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李劍國의 『唐前志怪小說史』 이래로 지속되고 있다. 人鬼와 人神, 人妖의 사랑 이야기에 대한 논문도 1990년대 이래 지금까지도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다. 중심 연구 패턴을 살펴보면 인간과 이역의 존재 즉, 人神, 人鬼, 人妖로 유형을 분류해 여러 작품을 비교하거나(王飛燕, 「唐前志怪小說愛情題材作品之類型與敘事特點」, 『中國人文科學』, 2015, 61), 지괴소설의 작품을 대상으로 人鬼戀을 고찰하여 문화적 함의를 설명하는 경우(李趙東, 「搜神記中的人鬼戀」, 『人文科學專輯』, 2008, 34, 史豐, 「搜神記世界探索」, 『安康學院學報』, 2012, 24)가 대부분이다. 『수신기』는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작품 중의 하나로 人鬼의 사랑과 冥婚을 연계해 작품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6) 『搜神記』의 원문 인용은 「晉干寶·陶潛撰, 曹光甫·王根林校點, 『搜神記·搜神後記』,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2)를, 『幽明錄』의 원문 인용은 「(南朝宋)劉義慶, 鄒曉晴輯注, 『幽明錄』,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88」을 바탕으로 한다. 이들 작품에 대한 번역은 「干寶(撰), 林東錫(譯), 『搜神記』, 서울, 동서문화사, 2020」과 「劉義慶(撰), 張貞海(譯), 『幽明錄』, 서울, 살림, 2000」을 참고하였다. 이후 작품 인용에 대한 각주는 「搜神記·駙馬都尉」 방식으로 간단하게 표기한다.

반영된 사람들의 심리도 차이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작품의 전체 내용을 이야기 흐름에 따라 살펴서, 위진 남북조 시기 사회풍조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 Ⅱ. 고대 중국의 鬼文化와 志怪小說의 鬼 故事

### 1. 鬼文化의 발전과 ‘鬼’ 故事의 성행

중국의 鬼文化 전통은 오래되었지만 ‘鬼’ 故事가 문학작품에서 본격적으로 서술된 것은 魏晉南北朝 시기부터 할 수 있다. 志怪小說은 鬼, 神, 妖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기록하였는데, 이 중 鬼 故事는 鬼文化의 영향으로 이 시기에 대량으로 서술되면서 위진남북조 지괴소설 변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고대 중국의 生死觀은 영혼관념을 바탕으로 한 鬼文化에 의해 형성되었다. “사람이 죽으면 鬼가 된다”,<sup>7)</sup>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데, 죽게 되면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기에 이를 일컬어 鬼라 한다”는 바로 鬼에 관한 고대 중국인들의 생각으로,<sup>8)</sup> 그들에게 있어 鬼란 인간 死後의 또 다른 인간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대 중국인들은 죽음이란 현실세계와 작별하고 다른 세상에서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 여겼던 것이다. 살아생전 사용하던 물품이나 심지어 노비까지도 관속에 부장품으로 넣어주던 고대 중국의 장례 풍속은 바로 이와 같은 鬼文化가 구체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sup>9)</sup> 저승(陰界)은 鬼의 활동 공간이므로 이승(陽界)을 떠난 인간 사후의 영혼 鬼가 저승에서도 생전처럼 생활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鬼를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된 것은 鬼神관념과 관계가 있다. 인간의 생로병사를 망령과 연계시켜 생각하게 되면서 鬼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고 하니, 이로부터 鬼는 人事를 제압할 수 있는 존재이자 사람을 해치거나 보호할 수 있는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鬼神숭배란 자연의 영혼과 인간의 영혼을 ‘神’과 ‘鬼’로 구분해 그것들에게 목적에 따라 제사를 지내며 심리적 평안을 얻고자 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사람을 해할 수도 있고, 조상의 망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도 있으니 鬼에게 제사를 지내며 비위를 맞추었다고 한다면, 神은 생활과 직접 관계된 자연의 영혼이기에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며 영원히 보호받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처럼 ‘鬼’, ‘神’이라는 두 가지 초현실적 존재에 대한 숭배는 求福을

7) 『說文解字·鬼部』, “鬼, 人所歸爲鬼.”

8) 李學勤 主編, 『禮記正義(十三經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祭義」, “衆生必死, 死必歸土, 此之謂鬼.” 이후 작품 인용에 대한 각주는 『禮記·祭義』 방식으로 간단하게 표기한다.

9) 金官布, 『鬼文化視野中的唐前志怪小說』, 北京: 人民出版社, 2018, 15~16쪽 참조. 귀신 관념은 영혼 관념의 기초에서 점차 발전해 형성된 것으로, 영혼 불멸의 영향에서 원시 장례 의식이 점차 이루어지면서 遠古시절 사람들은 친지의 시체를 처리하는 동시에 망자의 영혼이 생전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안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관에 구멍을 뚫어 망령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한다가나 사용했던 물품을 무덤에 두고 평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런 예에 속한다. 장례 의식 역시 망령이 인간세계를 떠나 다른 세계로 진입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구체화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0) 鬼와 神은 원래 구분되어 사용되었는데 鬼가 인간의 영혼이라고 한다면 神은 자연의 영혼이라 할 수 있다. 만물 영혼 관념을 바탕으로 한 것이 神이기 때문이다. 神은 자연의 영혼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자연에 의지해 생활했던 원시민들에게는 경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소망하던 당시 사람들의 심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11)</sup>

이후 혼용되어 숭배되었던 ‘鬼’, ‘神’은 혈연종법제도의 출현으로 점차 관념의 분리가 시작되었다.<sup>12)</sup> 이로 부터 鬼는 경시의 대상으로, 神은 경외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神들의 故事가 이른 시기에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었다.<sup>13)</sup> 神話 위주의 시대에 숭배에서 경계와 공포, 배척의 대상으로 전락한 鬼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春秋戰國시기에는 巫師 계층에 의해 鬼 고사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난세에 직면한 당시 사람들의 심리와 관계가 있다. 무사 계층이 기록한 대부분의 鬼 고사들은 난세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생로병사를 術法으로 鬼魂을 제압하여 惡鬼를 몰아냈던 무사 자신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墨子·明鬼』에서 秦穆公이 네모진 얼굴에 검은 모자를 쓴 鬼를 보고 두려워 도망치고 싶었다고 했듯이,<sup>14)</sup> 鬼의 이미지는 당시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공포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論衡·論死』에서 “세상 사람들은 죽은 이를 일컬어 鬼라 하는데, 그들은 사람들을 해할 수 있다”고 한 것도 당시 鬼文化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sup>15)</sup>

兩漢 시기는 神仙사상의 유행으로 求道와 成仙 관련 서적들이 성행하면서 鬼 고사의 기록이 잠시 줄어들긴 했으나 민간에서는 鬼 고사가 끊임없이 발생했을 것이다. 사회 지배계층들이 선망하는 仙境이나 장생불사 보다는 죽음이라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고통의 해소가 백성들에게는 보다 현실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葛洪은 당시 이와 같은 사회풍조에 대해 “보통 사람들은 영리하지 못하고 미련해 장생의 방법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모두 헛된 소리라 여겼다. 대신에 묘사스러운 鬼怪를 즐겨 믿어 무사에게 귀괴들에게 춤을 추며 제를 올려 맞이하라 했다”라고 하였다.<sup>16)</sup>

鬼 고사의 본격적인 서술과 발전은 위진남북조 시기 지괴소설을 통해 이루어졌다. 오랜 동란으로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과 파탄의 삶을 이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불안정하고 참담했던 상황은 鬼文化가 사회 전반으로 전파 확대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 죽음은 예로부터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현실이다. 인간의 死後란 전혀 알 수가 없기에 인류에게 있어 죽음이란 영원한 두려움이었다. 그런데 위진남북조 시기 사람들에게 있어 죽음은 늘 눈앞에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생불로가 아니라 자신의 주어진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 鬼文化의 성행은 동란의 사회가 초래한 불안정한 현실과 이에 직면한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인식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불교

11) 金官布, 앞의 책, 13~17쪽 참조.

12) 『禮記·表記』, “殷나라 사람은 神을 존송하여 백성들에게 神을 섬기라고 했다. 鬼를 먼저하고 禮를 뒤에 하며, 벌을 먼저하고 상을 뒤에 하며, 존송만하고 가까이 하지는 않는다.……周나라 사람은 예를 높여 베푸는 것을 숭상한다. 鬼를 섬기고 神을 공경하여 멀리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는데 충성을 다한다(殷人尊神, 率民以事神, 先鬼而後禮, 先罰而後賞, 尊而不親……周人尊禮尙施, 事鬼敬神而遠之, 近人而忠焉)”, [清]孫詒讓 撰, 『墨子閒詁』, 北京: 中華書局, 2019. 「明鬼」, “귀신은 상을 내릴 수도 벌을 내릴 수도 있다(鬼神之能賞賢而罰暴)” 이와 같은 전적들을 참고하면 殷周시기에 이미 시작된 귀신의 혼용이 춘추전국시대에도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 金官布, 앞의 책, 65쪽 참조. 西周이전에 鬼 고사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것은 바로 당시의 귀신 관념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

14) 『墨子·明鬼』, “……素服三色, 面狀正方. 鄭穆公見之, 乃恐懼奔……”

15) (漢)王充 張宗祥 校注, 鄭紹昌 校點, 『論衡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8. 「論死」, “世謂死人謂鬼, 有知能害人.”

16) 葛洪 撰, 『抱朴子』,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道意」, “凡人多以小點而大愚. 聞延年長生之法. 皆爲虛誕. 而喜信妖邪鬼怪. 令人鼓舞祈祀.”

와 도교의 성행 역시 사회적 상황과 연관이 있는데 이들 종교의 유행 역시 鬼文化 발전에 영향을 주어 鬼 고사의 내용을 한층 풍부하게 해주었다. 魯迅은 이와 같은 사회풍조에 대해 “중국에서는 원래 巫를 믿었다. 秦漢이래 神仙說이 성행하였고 漢末에는 다시 巫風이 크게 창궐하여 鬼道가 더욱 번성하게 되었다. 이때 소승불교 또한 중국에 유입되어 점차 퍼지게 되었고, 이런 것들은 모두 귀신을 떠벌려 靈異한 것들을 일컫게 하였으므로, 썸으로부터 隋에 이르는 기간에 귀신지괴가 특히 많이 저술되었다”고 설명하였다.<sup>17)</sup> 인간의 삶과 죽음은 현실이기에 인간의 사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여긴 鬼와 그들의 이야기에는 당시 사람들의 심리가 투사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 魏晉南北朝 志怪小說 ‘鬼’ 故事의 특징

魏晉南北朝 志怪小說의 ‘鬼’ 故事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鬼 형상과 그들의 이야기가 현실사회나 인간의 모습과 유사하게 서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시기 지괴소설의 鬼는 사람처럼 七情六慾을 지녔을 뿐 아니라 원한에는 복수, 은혜에는 보답하며, 사랑하고 혼인하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등 다양한 형상으로 의인화되었다. 때문에 鬼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미 넘치는 친근한 존재로 여겨져, 당시 사람들은 人鬼 사이의 신비로운 이야기조차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sup>18)</sup> 人鬼에 관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이와 관련된 이야기의 특징은 魯迅을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幽와 明의 세계가 서로 다른 길이는 하지만 인간과 귀신은 결국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때문에 그런 기이한 일들을 서술하는 것과 인간의 일상생활을 기재하는 것은 원래 眞妄의 구별이 없는 것이라 여겼다.<sup>19)</sup>

노신의 말을 참고한다면 幽와 明 세계와 人과 鬼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곧 위진남북조 시기 인간미 넘치는 鬼 등장 의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鬼는 인간의 또 다른 모습이자, 상상이 벗어난 異域의 존재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 지괴소설 저자들이 鬼를 통해 현실적 불만과 소망을 표출한 것 역시 이와 관련이 있으므로, 당시 지괴소설의 鬼 고사에는 이 시기의 사회현실과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人鬼의 사랑 이야기는 특히 낭만적인 제재인 ‘사랑’을 인간과 鬼를 통해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신비롭고 로맨틱하게 느껴진다. 현실세계에서는 불가능했던 사랑이 이역의 존재와 그 공간을 통해서만 가능하기에 당시 사람들은 人鬼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鬼 고사가 지괴소설에 대량으로 등장한 것은 위진남북조 시기 文人 작가들의 역할과 관계가 있다. 이 시기

17) 魯迅 撰, 앞의 책, 24쪽, “中國本信巫, 秦漢以來, 神仙之說盛行, 漢末又大暢巫風, 而鬼道愈熾; 會小乘佛教亦入中土, 漸見流傳。凡此, 皆張皇鬼神, 稱道靈異, 故自晉訖隋, 特多鬼神志怪之書。”

18) 『搜神記』와 『幽明錄』의 다양한 鬼 형상에 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자세한 예문은 생략한다.

19) 魯迅 撰, 앞의 책, 24쪽, “蓋當時以爲幽明雖殊途, 而人鬼乃皆實有, 故其敘述異事, 與記載人間常事, 自視固無誠妄之別矣。”

문인들은 불안한 정세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고 자유롭게 삶을 누리면서 자신들의 이상을 글로 표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난세에 鬼文化를 비롯한 당시의 사회풍조 또한 민간문학에 대한 문인들의 관심을 집중시켜 그들로 하여금 민간에 유전되던 異聞과 기담을 수집하고 기록하게 하였다.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했던 지괴소설의 또 다른 저자인 종교인들과는 달리 문인 작가들은 이전의 전적을 비롯해 당시에 유전되거나 유행하던 異聞과 기담을 수집해 서술했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풍조와 사람들의 심리가 고스란히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인 작가들은 현실의 일상생활을 바탕으로 人鬼나 人神 사이의 이야기를 서술했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지괴소설들은 현실성과 시대적 특징이 풍부할 수 있었다. 특히 문인 작가들에 의해 창출된 女鬼 형상은 이 시기 지괴소설의 성과로 평가되기도 한다. 위진남북조 시기 지괴소설은 아직 저자의 의도적인 창작에 의한 결과물이라 볼 수는 없지만 鬼 고사의 女鬼는 문인 작가들에 의해 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女神과 女仙의 형상은 위진남북조 시기 이전에도 있었지만 女鬼는 위진남북조 지괴소설에서 비로소 형상화된 것이기 때문이다.<sup>20)</sup> 이처럼 이 시기 문인들의 활발한 저술 활동은 문학창작 발달에 영향을 주어 지괴소설 人鬼의 이야기의 예술적 성취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 Ⅲ. 人鬼의 사랑 이야기에 반영된 鬼文化와 사회풍조

본고에서 고찰하고 있는 人鬼의 사랑 이야기는 단일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남녀의 우연한 만남, 신분 높은 여성과의 사랑, 還魂 등의 모티프가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다르게 모여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異域에서의 혼인’과 ‘還魂으로 맺은 인연’을 중심으로 『搜神記』와 『幽明錄』의 人鬼의 사랑 이야기 작품을 구분하고 이들 작품의 내용 분석을 통해 魏晉南北朝 시기의 사회풍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異域에서 이루어진 사랑 이야기

人鬼의 사랑이야기는 고대 중국의 冥婚 풍속과 관계가 있다.<sup>21)</sup> 명혼은 鬼文化를 바탕으로 한 일종의 영혼 결혼식으로,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周禮·地官』의 ‘遷葬하는 것과 嫁殤하는 것을 금지한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명혼은 周代에 이미 시행되었으나 원칙상 나라에서는 금지했던 혼인풍속이었다.<sup>22)</sup> 하지만 명혼은

20) 金官布, 앞의 책, 69쪽 참조. 여기에서는 문인의 女鬼 형상 창출 외에도 이 시기에 각화된 여귀를 고대 중국 문학을 통틀어 보더라도 선명하게 묘사된 형상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다.

21) 謝明勳, 「六朝志怪‘冥婚’故事研究 - 以“搜神記”爲中心考察」, 『東華漢學』, 2007, 5, 39쪽 참조. 謝明勳은 冥婚을 嫁殤婚, 娶殤婚, 속칭 鬼婚이라고도 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영혼결혼식이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혼인 형식에 대한 전적의 기록을 바탕으로 말한 것이다.

22) [漢]鄭玄注, [唐]賈公彥疏, 『周禮注疏』,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8, 519쪽. 「地官·媒氏」, 「禁遷葬者與嫁殤者」. 遷葬과 嫁殤에 대해 정현은 “遷葬은 생전에 부부가 아니었지만 사후 장례 지낸 것을 옮겨 서로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殤이란 19세 이전에 죽어 시집가지 못한 자로, 생전에 예로 맺어지지 못했기에 사후 합장했는데, 이 역시 인륜을 어지럽히는 일이다 (遷葬, 謂生時時非夫婦, 死既葬, 遷之, 使相從也. 殤, 十九以下, 未嫁而死者, 生不以禮相接, 死而合之, 是亦亂人倫者也)”라

부모가 혼인도 못하고 죽은 자식의 혼령을 위로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인간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행되었다고 한다.<sup>23)</sup> 명혼에 대한 기록은 史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太和6년, 明帝는 사랑하는 딸 淑이 궁 안에서 흥거하자 시호를 平原懿公主로 봉해 위패를 모셨다. 나중에 죽은 孫黃과 합장하고 그를 黃列侯로 봉했다”고 하였으니,<sup>24)</sup> 지배계층에서도 요절한 딸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명혼을 시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고대 중국의 명혼 풍속은 魏晉南北朝 시기에 유행한 鬼文化와 함께 人鬼의 사랑 이야기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人鬼의 사랑 이야기 중에서 異域 공간, 즉 女鬼의 무대인 陰界에서 이루어진 사랑 이야기가 명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음계에서 이루어진 사랑 이야기의 중심 모티브가 명혼 풍속과 유사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첫 번째 명혼은 대부분 좋은 집안의 딸이 요절했을 때 배필을 찾아 인연을 맺어주었는데, 이야기에서는 신분 높은 이역의 여성과 현실 세계의 평범한 남성의 인연으로 서술되었다. 두 번째 음계에서 진행되는 명혼처럼 이야기 속 남녀는 대부분 女鬼의 거처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 명혼은 음계에서 진행되는 혼인이므로 소설 속 女鬼와 남자의 결합은 대부분 무덤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서술되었다. 마지막으로 사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명혼 이후 남성은 모두 관리로 봉해졌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女鬼의 공간에서 부부가 된 경우 남성이나 그 아들이 출세하는 것으로 서술되었다. 이처럼 명혼 풍속은 ‘신분 높은 女鬼와 현실 세계 평범한 남성의 사랑’, ‘음계에서 부부의 인연 맺기’, ‘현실 세계 복귀 후 출세’라는 이야기 전개의 전형적인 모티브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搜神記』의 「駙馬都尉」, 「崔少府墓」, 「漢談生」, 「紫玉」의 내용을 이 세 가지 모티브를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해 당시의 사회 풍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신분 높은 여성과 평범한 남성의 만남

人神 사이의 사랑 이야기는 이 시기 유행하던 인간과 異域의 존재 사이의 사랑 이야기 중 하나다. 方士와 도사 무리에 의해 창출된 人神의 사랑 이야기는 다른 이역 존재와의 사랑 이야기보다 먼저 발전했던 까닭에 人鬼의 사랑 이야기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sup>25)</sup> 특히 다음에서 살펴볼 『搜神記』의 작품들은 ‘우연한 만남 - 仙境 진입 - 현실 복귀’라는 人神의 사랑 이야기와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 유사하다. 그러므로 이역에서 이루어진 人神의 사랑 이야기를 참고하여 당시의 鬼文化와 사회 풍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역 공간에서 인연을 맺은 人鬼의 이야기도 대부분 人神의 사랑 이야기와 비슷한 패턴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현실 세계의 남성이 우연한 기회에 미모의 여성을 만나고, 여성과 함께 陰界에서 부부가 되었다가 현실 세계로 복귀하기 때문이다.

人神이든 人鬼이든 우선 두 남녀의 만남이 유사하다. 이역의 신분 높은 여성과 현실 세계 평범한 남성의

고 했다.

23) 朱春潔, 「人鬼戀與人妖戀小說不同結局的原因及意義 - 以魏晉南北朝志怪小說爲考察中心」, 『中國文言小說研究』, 2020년, 145쪽 참조.

24) <https://www.koolearn.com/shici/gj/zj-1347.html> 陳壽 『三國志·后妃傳』, “太和六年, 明帝愛女淑薨于宮, 追封諡淑爲平原懿公主, 爲之立廟. 取後亡從孫黃與合葬, 追封黃列侯.”

25) 張振軍, 앞의 책, 99쪽 참조.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진다.

㉠ 隴西人 辛道度가 雍州城으로 유학 가는 길에 성에서 4, 5리 되는 곳에서 저택을 만나게 되었다. 푸른 옷을 입은 여자가 문에 있었다. 신도도가 대문 앞에 가 저녁밥을 요구했다. 여자가 들어가서 秦女에게 알리자 그를 불러오라고 명했다. 진녀는 서쪽 의자에 앉아 있었다. 신도도가 성명과 사는 곳을 말했다. 말이 끝나자 진녀는 그를 동쪽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는 음식을 마련해 주었다.<sup>26)</sup>

㉡ 노충의 나이 20세, 동지 하루 전날, 그는 집을 나서 서쪽으로 사냥을 하러 갔다. 노루 한 마리를 발견하고 활을 들고 쏘아 명중시켰다. 노루는 자빠졌으나 다시 일어나기에 노충은 그것을 따라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멀리까지 가버렸다. 갑자기 길 북쪽 1리쯤에 높은 문에 사방에는 기와집이 들어서 있어 마치 관사 같았다. 더이상 노루는 보이지 않았다.……어떤 사람이 새 옷을 들고 와 말했다. “태수께서 이것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노충이 옷을 갈아입고 관사로 들어가 태수를 만나 성명을 말했다. 술과 안주가 몇 차례 이어진 후 노충에게 말했다. “부친께서 우리 집을 비루하다 여기지 않으셨는지 최근에 서신을 보내, 그대와 내 어린 딸을 혼인시키자 하여 그대를 맞이한 것이요.” 서신을 노충에게 보여주었다.<sup>27)</sup>

㉠에서 辛道度는 유학길에 우연히 저택을 마주하여 그곳에서 秦女를 만났다. ㉡에서는 사냥 갔던 魯充이 노루를 따라갔다가 우연히 문이 높고 주변에 기와집이 들어서 있는 少府로 진입하게 되어 그곳에서 崔少府의 딸을 만났다. 人神의 사랑 이야기의 ‘袁栢과 根頤-仙女’나 ‘黃原-妙音’의 만남처럼 ㉠과 ㉡의 남녀의 만남 역시 우연히 이루어졌다. 단 ㉡의 경우 여자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그녀의 아버지 崔少부가 먼저 노충을 맞이해 그들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분명 이역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에도 현실 세계처럼 崔少부가 딸의 혼사를 주도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崔少부를 만난 곳이 현실 세계인지 아닌지는 노충의 진입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루를 통해 우연히 진입하게 된다는 설정이 선경으로 진입했던 남성의 경우와 같기 때문이다. 매개물을 통한 이역 공간으로의 진입은 현실 세계에서 他界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막연한 환상을 품게 한다. 때문에 人神의 사랑 이야기에서는 대부분 개와 사슴 같은 매개물을 통해 이역의 공간으로 진입하였다.<sup>28)</sup> ㉡에서 노충을 인도한 노루 역시 타계 진입의 길잡이였다고 할 수 있다. 人神의 사랑 이야기에 등장하는 매개물이나 동굴이 현실 세계와 격절된 선경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이라 한다면,<sup>29)</sup> 人鬼의 우연한 만남은 대부분 단순하게 묘사되어 있어 이후

26) 『搜神記·駙馬都尉』, “隴西辛道度者, 游學至雍州城四五里, 比見一大宅, 有青衣女子在門。度詣門下求飧。女子入告秦女, 女命召入。度趨入閣中, 秦女于西榻而坐。度稱姓名, 叙起居。既畢, 命東榻而坐, 卽治飲饌。”

27) 『搜神記·崔少府墓』, “充年二十, 先冬至一日, 出宅西獵戲。見一獐, 舉弓而射, 中之。獐倒復起, 充因逐之, 不覺遠。忽見道北一里許, 高門, 瓦屋四周, 有如府舍, 不復見獐。……卽有一人提一襖新衣, 曰: 「府君以此遺郎。」充便着訖, 進見少府, 展姓名。酒炙數行, 謂充曰: 「尊府君不以僕門閭陋, 近得書, 爲君索小女婚, 故枉迎耳。」便以書示充。”

28) 이인경, 『魏晉南北朝 志怪小說 속 ‘仙境’ 이미지와 예술적 성취-仙境 유람 유형 志怪小說을 중심으로-』, 『中國文學研究』, 2017, 68, 67쪽 참조. 『異苑·武溪石穴』에서는 사슴이 사냥꾼을 인도하고, 『幽明錄·黃原』에서는 개와 사슴이 黃原을 인도해 남성들이 선경으로 진입했다.

전개되는 이야기를 통해 남자 주인공이 타계로 진입했음이 분명해진다. ㉠과 ㉡의 만남이 남성이 女鬼의 공간으로 진입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남성의 공간으로 女鬼가 찾아와 두 사람이 인연을 맺는 경우도 있다.<sup>30)</sup>

漢나라 談生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나이가 40세인데도 부인이 없었다. 늘 詩經을 읽으며 감격 하곤 했다. 한밤중에 용모와 자태, 옷차림이 세상에 둘도 없이 빼어난 15, 16세 정도의 여자가 담생에게 나타나 그녀와 부부가 되었다. 그녀가 말했다. “저는 당신과 다르니 불로 저를 비추지 말아주십시오. 3년이 지나면 비추셔도 됩니다.”<sup>31)</sup>

나이 40살의 평범한 선비 談生 앞에 어느 날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찾아와 부부가 되길 요구하였다. 여성의 등장과 갑자기 이루어진 혼인이 당황스럽지만 “저는 당신과 다르니 불로 저를 비추지 말아주십시오. 3년이 지나면 비추셔도 됩니다”라는 말을 통해 혼인을 제안한 여성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을 자신의 공간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현실 세계로 들어와 인연을 맺은 것은 저승이 아닌 이승에서의 삶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담생과 女鬼의 인연은 ㉠과 ㉡처럼 이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연히 만난다는 모티브는 앞의 두 이야기와 동일하다. 우연한 만남의 장소와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과 ㉡의 女鬼가 각각 秦閔王의 딸, 崔少府의 딸인 것처럼 담생의 아내가 된 女鬼 역시 睢陽王의 딸로, 이야기에 등장한 女鬼들은 모두 높은 신분의 여성으로 형상화되었다.

신분 높은 여성과 평범한 남성의 조합은 「紫玉」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해 女鬼는 吳王 夫差의 딸, 남성은 도술을 좀 할 줄 아는 보통 사람으로 묘사되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두 사람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생전에 연인이었기 때문에 혼인까지의 과정이 다소 차이가 있다. 還魂이라는 모티브가 첨가되어 남녀의 사랑이 더 애절하게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역에서의 혼인을 통해 전개되는 전체적인 이야기와 여기에 반영된 사회풍조,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연히 만나거나 혹은 정혼했던 인연으로 부부가 되는 女鬼와 남성은 모두 신분 높은 여성과 평범한 남성이라는 공통된 모티브가 있었다. 현실 세계라면 도저히 실현 불가능했을 다른 신분의 남녀의 인연이 人鬼를 통해 표출된 것은 신분 차이로 빚어지는 불합리한 사회현실에 대한 풍자일 수 있다. 문벌귀족사회에서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을 지피소설의 저자들은 人鬼 형상을 통해 표출시킨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2) 異域 공간에서 인연 맺기

신분 높은 女鬼와 평범한 남성의 사랑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대 중국 사회에서 유행했던 冥婚 풍속과

29) 황패강, 『한국서사문학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72, 176쪽 참조. 동굴은 속세와 타계 사이를 분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0) 談生 이야기는 女鬼가 속세의 공간에서 인연을 맺기에 ‘이역에서의 사랑’이라는 소주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번 장에서 살펴보고 있는 이야기들과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내용이 전개되며 주제 또한 일치하므로 ‘이역에서 사랑이야기’로 분류해 살펴보았다.

31) 『搜神記·漢談生』, “漢談生者, 年四十, 無婦, 常感激讀『詩經』。夜半, 有女子年可十五六, 姿顏服飾, 天下無雙, 來就生爲夫婦。乃言曰: 「我與人不同, 勿以火照我也。三年之後, 方可照耳。」”

관계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와 같은 이야기 발전에 영향을 끼친 것은 人鬼를 통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을 이루고자 했던 위진남북조 시기 사람들의 바람 때문이었다.

㉠ “저는 秦閔왕의 딸인데 曹나라에 시집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불행히도 남편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죽은 지 이미 23년이 되었는데 혼자서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대가 왔으니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3일 밤낮이 지난 후 진녀는 스스로 말했다. “그대는 산 사람이고 저는 귀신입니다. 그대와 함께 인연을 맺었지만 이것은 3일 밤만 가능합니다. 오래 머물 수 없는 것은 마땅히 禍를 입기 때문입니다. 짧은 밤으로 우리의 정을 다 풀 수가 없겠지요. 이별 후에는 무엇으로 그대에게 저의 신의를 표시할 수 있을까요?” 곧 침상 뒤 상자를 가져오게 해 상자를 열어 금침 하나를 꺼내 신도에게 주어 신표로 삼았다.<sup>32)</sup>

㉡ 황혼이 되자 사람들이 말했다. “신부의 단장이 이미 끝났습니다.” 노총이 동쪽 사랑에 도착하자 여자는 이미 수레에서 내려 자리 끝 쪽에 서서 함께 절을 올렸다. 3일 동안 주연이 계속되었다. 3일간 잔치가 다 끝나자 최태수는 노총에게 말했다. “그대는 돌아가도 되고, 딸이 임신해 만약 아들을 얻으면 마땅히 그대에게 보낼 것이니 이것은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딸을 낳는다면 여기에서 기르도록 할 것이오.” 밖에 명을 내려 수레를 준비해 손님을 배웅하라고 했다. ……여인이 아들을 안고 노총에게 와 아들과 금저울을 주며 시를 읊었다.<sup>33)</sup>

㉠과 ㉡의 밑줄 친 부분은 이역에서 이루어진 남녀의 혼인을 나타낸 것이고,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남성이 이역 공간을 떠나기 전의 모습을 표시한 것이다. 밑줄 친 부분에 3일이라는 기간이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왜일까? 3일은 남성이 음계에서 머물 수 있는 최대한 기간으로 이를 통해 남녀의 혼인이 진행된 공간이 현실 세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현실 세계와 차이 없이 두 사람의 혼인이 진행되고 있어 그들이 있는 공간이 他界임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그대와 함께 벌써 인연을 맺었지만, 이것은 3일 밤만 가능합니다”라는 秦女의 말을 통해 그곳이 갑자기 현실 세계가 아니라는 자각을 하게 된다. 이것이 人鬼의 사랑 이야기의 특징이다. 당시 사람들은 鬼의 공간이 실재한다고 여겼을지라도 그곳은 분명 상상이 빚어낸 이역의 공간이므로 보통 사람은 반드시 현실 세계로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3일이라는 금기는 鬼文化가 투사된 것으로, 이야기에서는 이것을 통해 음계가 현실 세계와는 다른 이역 공간임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선경으로 진입한 인간이 반드시 현실 세계로 복귀한다는 모티브는 人神의 사랑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주인공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선경에 진입했던 남성들 역시 현실 세계로 복귀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

32) 『搜神記·駙馬都尉』, “我秦閔王女, 出聘曹國, 不幸無夫而亡。亡來已二十三年, 獨居此宅。今日君來, 願爲夫婦。」經三宿三日後, 女即自言曰: 「君是生人, 我鬼也。共君宿契, 此會可三宵, 不可久居, 當有禍矣。然茲宿, 未悉綱繆, 既已分飛, 將何表信于郎?」即命取床後盒子開之, 取金枕一枚, 與度爲信。”

33) 『搜神記·崔少府墓』, “及至黃昏, 乃曰: 「女郎妝嚴已畢。」充既至東廊, 女已下車, 入席頭, 却共拜。時爲三日, 給食。三日畢, 崔謂充曰: 「君可歸矣。女有娠相, 若生男, 當以相還, 無相疑; 生女, 當留自養。」敕外嚴車送客。……女抱兒還充, 又與金碗, 并贈詩曰”

만 人神의 이야기에서는 그들이 복귀한 현실 세계가 선경으로 진입하기 전과 매우 다르게 묘사되었다. “밖으로 나왔더니 친척과 친구들은 죽고 없었고, 마을과 집들도 변해 더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그들의 7대손을 찾아 물어보니 조상님이 입산하셨다가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하셨다고 전해 들었다고 했다”처럼 현실로 복귀한 남성들은 이전과 너무 달라진 세상을 마주해야 하였다.<sup>34)</sup>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선경이란 상상 속 이상세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음계도 이역 공간이지만 선경과는 다르다. 음계는 鬼의 활동무대이므로 현실 세계와는 구분되지만 이 공간은 신선들이 거주하는 선경과는 차이가 있다. “선경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1년과 같다”라고 했으니,<sup>35)</sup> 이것은 선경이 현실 세계와 공간적 차이 뿐 아니라 시간적 차이도 있는 격절된 공간임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 세계와 선경의 시간적 격차는 곧 당시 사람들이 인식하는 人神 사이의 거리감이라 할 수 있다. 선경의 찰나가 인간 세상의 무수한 시간이므로, 그곳은 단지 사람들이 상상으로 빚어낸 환상의 공간임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음계는 죽은 영혼 鬼들의 활동무대다. 따라서 이곳에 진입한 현실 세계 사람은 제한된 기간 이상은 머무를 수 없다. 이것이 이역 공간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 타계 진입과 복귀는 예정된 패턴이라 할 수 있다.

人鬼의 공간을 구분하는 3일이라는 금기는 3, 7일 장례 풍속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어떤 사회이든 사람들은 사후에 일정기간 동안 풍속, 금기, 의식을 이행하는데, 이것은 생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관계가 있다고 했으니,<sup>36)</sup> 3, 7일 장례 풍속에는 고대 중국인들의 생사관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37)</sup> 영혼이 현실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을 엄수해야 하므로 위 이야기에서 남성들은 음계에서 3일 이상 머무를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과 ㉡의 3일이라는 제한된 기간은 금기이자 음계와 현실 세계의 공간적 차이를 나타내는 설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경에서 복귀했던 경우와 달리 음계에서 복귀한 남성들이 접하게 된 현실 세계의 모습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과 ㉡의 남성들은 대문을 나서거나 수레만 타면 바로 현실 세계로 복귀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돌아온 세상은 떠나기 전 모습과 전혀 차이가 없어 이역 공간에서 맺은 3일간의 인연이 마치 하루밤 꿈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처럼 鬼의 무대는 분명 현실 세계와는 구분되지만 무리 없이 왕래할 수 있는 이역의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女鬼의 세상은 현실 세계와 훨씬 밀접하게 느껴진다고 할 수 있다.

㉠, ㉡과는 달리 女鬼의 초대로 鬼의 세상임을 미리 알고 진입하는 경우도 있다. 연인의 초대이지만 韓重은 “죽음과 삶은 길이 다르니 잘못될까 두려워 그대 말을 따를 수가 없소이다”라고 대답하며 주저하다 결국 이역의 공간에서 자옥과 혼인을 한다.<sup>38)</sup>

34) 『幽明錄·劉晨阮肇』, “既出, 親舊零落, 邑屋改異, 無復相識. 問訊得七世孫, 傳聞上世入山迷不得歸.”

35) 甘忠寶, 『魏晉南北朝小說中的洞窟仙境意象』, 『重慶職業技術學院學報』, 2008, 3, 79쪽 참조. “天上一日, 人間一年”. 신화와 도교 설법에서는 인간 세상과 신선들 세상의 시간을 비교해 이야기함으로써 선경에 대한 환상과 신비로움을 부여했다. 선경과 속세와 관련된 이와 같은 시간관념은 현재 중국의 신화류 사극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36) 朱春潔, 앞의 논문, 147쪽 참조. 『原始思維』에서 인용한 내용 참조.

37) 朱春潔, 위의 논문, 147~148쪽 참조. 고대 중국의 장례 풍속에 따르면 영혼이 현실 세계를 아직 떠나지 않았거나 영혼을 불러 부활의 가능성을 열어 주는 그 기간이 3일에서 7일이었다고 한다.

38) 『搜神記·紫玉』, “死生異路, 懼有尤愆, 不敢承命.”

㉔ 자옥이 말했다. “죽음과 삶의 길이 다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별하면 이후에는 영원히 뒷날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내가 귀신이라 그대에게 화를 끼칠까 두려워하시는지요? 성의를 다해 그대를 받들고자 하는데 어찌 믿지 못하시는지요?” 한중이 그 말에 감동하여 자옥을 따라 무덤으로 들어갔다. 자옥은 한중에게 음식 등을 차려 주연을 베풀어 주었고, 3일 밤낮 동안 부부의 예를 다하였다. 한중이 무덤을 나올 때 자옥이 지름 한 치짜리 명주를 한중에게 주며 말했다.<sup>39)</sup>

㉑과 ㉒에서 신도도와 노충은 우연히 진입한 음계에서 여성이 귀신임을 알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인연을 맺었다. 반면 ㉔에서 한중은 女鬼인 자신의 연인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음계로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한다. 연인의 호소로 함께 음계로 들어가지만 한중의 대사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전달하고 있어 사후세계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두렵지만 왕래는 가능한 실재하는 이역의 공간이 바로 당시 사람들이 상상하는 鬼의 세상이었던 것이다. 자옥도 혼인한 지 3일 만에 한중을 현실 세계로 되돌려 보낸다. ㉑과 ㉒처럼 여기에서도 3일이라는 제한된 기간으로 남녀 주인공이 인연을 맺은 곳이 현실 세계와 구분되는 이역 공간이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㉑, ㉒, ㉔의 질계 표시한 부분을 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두 사람이 헤어지기 전에 여성들은 모두 남성에게 금침, 금저울, 명주와 같은 고가의 물건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헤어짐에 앞서 첨가된 ‘선물’이라는 제재는 이후 현실로 복귀하는 남성의 신변에 큰 영향을 끼친다. 현실 세계에서 평범하게 생활했던 남성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선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복선을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선물은 답생도 아내에게 받는다. 이 부부는 현실 공간에서 인연을 맺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야기 전개가 조금 다르다. 우선 女鬼가 답생 앞에 등장한 것은 부부 인연을 통해 현실 세계의 인간이 되고 싶어서였다. 다시 말해 還魂을 통해 음계에서 양계로 돌아오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위해서는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漢談生』에서의 금기는 3년이라는 기간이다. 이 기간을 통해 鬼에서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人神의 사랑 이야기에서는 이것 역시 불가능하다. 신경이란 현실 세계 사람이 우연히 들어갈 수는 있어도 절대로 다시 찾을 수는 없는 격절된 공간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역 공간이지만 위진남북조 시기 사람들은 鬼의 공간을 더 친근하게 여기고 있어서 그곳을 현실 세계와 왕래할 수 있는 곳으로 상상하였다고 할 수 있다.

3년 동안 자신을 비취 보지 말라는 아내의 부탁을 지키지 못한 답생은 아내와 이별하게 되는데, 이때 여성은 자식을 걱정하여 답생을 음계로 인도하고, 선물을 준 후 돌려보낸다.

㉔ 답생이 아내를 따라 화려한 저택으로 들어가니 물건들이 범상치 않았다. 아내가 구슬로 꾸민 도포 한 벌을 답생에게 주며 말했다. “이것이면 당신 힘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아내는 답생의 옷자락 하나를 찢어가지고는 자신은 두고 떠나라고 했다.<sup>40)</sup>

39) 『搜神記·紫玉』, “玉曰: 「死生異路, 吾亦知之, 然今一別, 永無後期. 子將畏我爲鬼而禍子乎? 欲誠所奉, 寧不相信?」 重感其言, 送之還家. 玉與之飲燕, 留三日三夜, 盡夫婦之禮. 臨出, 取徑寸明珠以送重”

40) 『搜神記·漢談生』, “生隨之去, 入華堂室宇, 器物不凡. 以一珠袍與之, 曰: 「可以自給.」 裂取生衣裾, 留之而去.”

담생이 받은 선물은 도포다. 그리고 아내는 담생의 옷자락을 찢어 가진 후 남편을 현실로 복귀시켰다. ㉠, ㉡, ㉢처럼 담생은 헤어지기 전 고가의 선물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옷자락을 아내에게 남겼다. 이 또한 이야기의 복선으로 이후 이야기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 이야기에 등장한 여성들은 공통점이 있다. 모두 귀신이며 그녀들의 생전 신분 역시 고귀하기 때문이다. 원래 왕이나 귀족의 여식이었던 여성들은 사후 현실 세계의 평범한 남성들을 남편으로 맞이하였다. 그 만남이 대부분 우연이기에 이역에서 맺은 인연이 유한함을 예고하는 듯하다. 왜 女鬼는 하나같이 귀한 집 아가씨들이고 남성은 현실 세계의 평범한 인물이었을까? 이역을 떠나기 전 남성에게 선물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같은 의문은 선물을 가지고 현실로 복귀하는 남성을 통해 분명해진다.

### (3) 현실 세계 복귀 후 출세한 남성

異域 공간에서 이루어진 人鬼의 사랑 이야기는 분명 현실 세계의 상황과 차이점이 있다. 魏晉南北朝 사회는 문벌귀족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집안 출신인지가 혼인 결정의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때문에 위 이야기의 주인공들처럼 집안이 차이가 난다면 현실 세계에서는 두 사람의 혼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분의 차이가 나더라도 혼인이 성사되는 공간이 이역의 陰界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신분으로 제한되었던 당시 혼인풍속에 대한 반감이 人鬼를 통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분과 무관한 혼인에 대한 소망만이 이들 이야기에 투사된 것은 아니다. 女鬼와 헤어지기 전에 남성에게 전달한 선물은 바로 남성의 인생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역에서는 신분 높은 여귀와 부부였지만 현실 세계로 복귀한 남성은 여전히 평범한 인물일 뿐이다. 생활의 도움이 되고자 남성들은 아내에게 받은 선물을 시장에 팔러 나갔다.

㉠ 얼마 뒤 진나라에 이르러 저자에서 금침을 팔았다. 마침 진나라 왕비가 동쪽으로 여행을 하다가 신도도가 파는 금침을 보고 의심해 어디에서 금침을 얻은 것인지를 물었다.……사람을 보내 진녀의 무덤을 파헤쳐 관을 열어보니 원래 부장품들은 모두 있는데 오직 금침만 보이지 않았다. 다시 진녀 시신의 옷을 벗겨 살펴보니 성교의 흔적이 완연하니, 진나라 왕비가 그제서야 믿고 탄식하며 말했다. “내 딸은 신령스럽기 그지없구나. 죽은 지 23년이 지났거늘 산 사람과 교제를 하다니. 이 자는 진정 내 사위로다.” 신도도를 駙馬都尉로 봉하고 금과 비단, 거마를 하사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냈다.<sup>41)</sup>

㉡ 노충이 나중에 수레를 타고 저자에 가 금저울을 팔려고 했다. 높은 가격을 부르면서 팔려고는 하지 않고 그 물건을 알아주기를 바랬다.……“옛날 이모가 최소부에게 시집가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혼인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애통하게 여겨 금저울 하나를 죽은 딸의 관에 넣어주었습니다. 금저울을 얻게 된 정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노충이 사실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 아들도

41) 『搜神記·駙馬都尉』, “尋至秦國, 以枕于市貨之. 恰遇秦妃東遊, 親見度賣金枕, 疑而索看, 詰度何處得來. ……乃遣人發冢, 啓柩視之, 原葬悉在, 有不見枕. 解體看之, 交情宛若, 秦妃始信之. 嘆曰: 「我女大聖, 死經二十三年, 猶能與生人交往, 此是我真女婿也.」 遂封度爲駙馬都尉, 賜金帛車馬, 令還本國.”

슬프게 울더니 금저울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알렸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노충의 집에 가 아이를 데려오게 하여 살펴보았다. 모든 친족들이 모였다. 아이에게는 최소부 딸 모습도 있었고 노충의 모습도 있었다.……노충의 아들은 훌륭한 인물이 되었고 2천석의 군수가 되었다. 자손들의 벼슬도 지금까지 이어졌다.<sup>42)</sup>

㉠과 ㉡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금침과 금저울은 남성이 이역 공간에서 女鬼와 부부의 인연을 맺었음을 증명해주는 물건이다. 女鬼가 남편에게 주었던 선물은 원래 그녀들의 부장품으로, 여성의 친족들이 죽은 친족의 영혼과 남성이 이역에서 인연을 맺었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매개 물이었기 때문이다. ㉠에서는 신도도를 금침을 도굴한 사람으로 의심한다. 신도도와 딸의 기이한 인연 이야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秦나라 왕비는 딸의 무덤을 열어 부장품 중 금침만이 사라진 사실과 딸 시신에 남은 성교의 흔적을 확인한 후 신도도를 사위로 인정하고 駙馬都尉로 봉한다. ㉡의 결말도 ㉠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성의 이모가 금저울의 주인을 알아보아, 노충과 아들은 이것을 계기로 여성의 친족들을 만나 기이한 인연에 대해 인정을 받음으로써 그 아들은 이후 군수가 된 것이니 그야말로 신분 상승이라 아니할 수 없다.

글 읽는 선비일지라도 寒門 출신이면 출세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려웠던 사회가 문벌귀족 중심의 위진남북조 시기다. 하지만 위 이야기의 신도도와 노충은 이역에서 女鬼와 인연을 맺었을 뿐인데, 현실 세계에서 단번에 신분이 상승되었다. 女鬼가 고귀한 신분이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실 세계에서는 평민이나 한문 출신은 재주가 있더라도 출세할 수 없었던 당시의 사회현실이 人鬼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표출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문 출신은 등용되었다 하더라도 요직에 나갈 기회조차 드물었던 귀족 사회에서, 남성이라면 혼인을 통한 신분 상승을 한 번쯤은 상상해 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 유행하던 명혼 풍속 역시 혼인을 통한 신분 상승 이야기에 토대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사료를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명혼 후 남성은 追封되었기 때문이다.

한담과 한중이 받은 선물도 여귀와 남성의 인연을 증명해주는 매개물 역할을 한다.

담생이 도포를 가지고 저자에 가니 睢陽王 집에서 이것을 샀고 담생은 1천만금을 얻었다. 수양왕이 도포를 알아보고 말했다. “이것은 내 딸의 도포인데 저자에서 어찌 얻을 수 있었지? 이것은 무덤을 파 헤친 탓이다.” 이에 담생을 잡아 취조했다. 담생은 모두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나 왕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 딸 무덤을 살펴보니 완전히 예전과 같았다. 무덤을 파 다시 살펴보니 관 뚜껑 아래 옷자락이 과연 있었다. 담생의 아이를 불러서 보니 왕의 딸 모습과 닮았다. 왕은 그제서야 모든 이야기를 믿고 담생을 불러 도포를 다시 하사하고 사위로 삼았다. 담생의 아이는 表를 올려 郎中이 될 수 있도록 했다.<sup>43)</sup>

42) 『搜神記·崔少府墓』, “充後乘車入市賣碗, 高學其價, 不欲速售, 冀有識。……「昔我姨嫁少府, 生女, 未出而亡。家親痛之, 贈一金碗, 着棺中。可說得碗本末。」充以事對。此兒亦爲之悲咽, 賣還白母。母即令詣充家, 迎兒視之, 諸親悉集。兒有崔氏之狀, 又復似充貌。……兒遂成令器, 歷郡守二千石。子孫冠蓋, 相承至今。其後植, 字子幹, 有名天下。”

43) 『搜神記·漢談生』, “後生持袍詣市, 睢陽王家買之, 得錢千萬。王識之曰: 「是我女袍, 那得在市? 此必發冢。」乃取拷之。生具以實對, 王猶不信。乃視女冢, 冢完如故。發視之, 棺蓋下果得衣裾。呼其兒視, 正類王女。王乃信之, 即召談生, 復賜遺之, 以爲女婿, 表其兒爲郎中。”

「漢談生」은 ㉠, ㉡의 이야기와 거의 유사한 전개를 보인다. 답생의 도포를 알아 본 수양왕이 답생이 딸의 무덤을 도굴했다고 취조하지만 무덤을 확인한 후 답생을 사위로 인정한다. 관 뚜껑 아래 옷자락은 이별 전에 답생의 아내가 일부러 찢어서 가지고 있던 것으로 이것은 수양왕이 답생의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책만 읽던 나이 많은 평범한 남성이 女鬼와의 혼인을 통해 왕의 사위가 되고, 그 아들 역시 벼슬을 하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신분 상승이라 할 수 있다.

「紫玉」의 경우는 비교적 간단하게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명주를 보고 화가 난 吳王을 피해 한중은 자옥의 무덤에 가 하소연을 하고, 자옥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오왕의 눈앞에 나타나, “제가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제수를 준비해 제 무덤 앞에서 조문을 했습니다. 그의 변함없는 돈독한 정에 감동하여 다시 만나 명주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한중이 제 무덤을 판 것이 아니니, 원컨대 그에게 벌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말만 남긴 채 사라진다.<sup>44)</sup> 한중이 받은 명주 역시 오왕을 찾아가 이역에서 맺은 자옥과의 인연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한중이 오왕에게 사위로 인정받았다거나 관료로 임용되었다는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지 않아 위 이야기들과는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혼인을 통해 신분 상승을 희망해보는 당시 사람들의 소망은「紫玉」이야기에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진남북조 시기는 소위 “上品에 오른 사람치고 寒門은 없고, 下品에 든 사람치고 世族은 없다”는 귀족 중심 사회였다.<sup>45)</sup> 寒微한 집안 출신이면 揚名하기란 불가능하고, 좋은 집안 출신의 귀족 자제라면 능력이 없어도 요직을 차지할 수 있는 사회 구조에서 한문 출신 선비들은 출구가 없어 절망하며 불합리한 세상에 분개하였다. 신분 차이로 빚어지는 이와 같은 사회적 불합리에 대해 불만스럽지만 극복할 수 없기에 이 시기 지괴 소설 작가들은 神, 鬼, 妖의 이야기를 통한 대리만족을 원했던 것이다.

당시 鬼文化의 유행은 대량의 鬼 고사 성행으로 이어져 人神의 사랑 이야기가 人鬼의 사랑 이야기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人神과 人鬼의 사랑 이야기의 공통점은 다음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남녀의 만남이 대부분 우연히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둘째 인연을 맺은 남녀는 신분의 차이가 나는데, 여성은 신분이 높은 이역의 인물로, 남성은 현실 세계의 평범한 인물로 묘사된다. 셋째 남녀의 인연은 대부분 이역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제한된 기간이 지나면 남자는 현실 세계로 복귀해야 한다. 이 시기의 人鬼 이야기가 人神의 사랑 이야기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바로 이와 같은 공통적인 모티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남녀가 인연을 맺게 되는 이역 공간은 차이점이 있다. 선경은 시공간이 격절된 타계로 사람들이 구현하고 싶은 이상적인 세상이라면, 鬼의 공간인 음계는 현실 세계와 구분되지만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경계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鬼는 인간 사후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주거공간 역시 현실 세계와 유사할 수밖에 없으나 인간세계와는 구분되는 이역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을 사람들은 실현해 보고 싶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역에서 이루어진 人鬼의 사랑 이야기에는 문벌귀족사회에서 불가능한 신분 상승에 대한 열망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44) 『搜神記·紫玉』, “聞玉已死, 故賫牲幣, 詣冢吊唁。感其篤終, 輒與相見, 因以珠遺之。不爲發冢, 願勿推治。”

45) <https://zhidao.baidu.com/question/144047238.html> 『晉書·劉毅傳』, “上品無寒門, 下品無世族”

## 2. 還魂으로 이루어진 사랑 이야기

志怪小説 人鬼의 사랑 이야기 중 ‘還魂’ 모티브는 생명 연장에 대한 사람들의 소망이 투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魏晉南北朝 시기에 더욱 강렬해진 생명에 대한 열망이 환혼을 통한 현실 세계로의 복귀 이야기에 투사된 것이기 때문이다.<sup>46)</sup> “홍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어 해골이 땅을 덮었다. 날이 흐려져 비가 오려 할 때마다 귀에 퐁퐁 앓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신음과 탄식의 소리가 들려 시끄럽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sup>47)</sup> 동란 시절의 빈번한 전쟁과 자연재해 등은 사람들의 목숨을 많이 희생시켰기 때문에 이를 직접 목도해야 했던 당시 사람들은 생명에 대해 자연스럽게 민감해졌을 것이다. 『古詩十九首』의 “생명은 100년도 채우지를 못하면서, 근심은 천년만큼 품고 있네”,<sup>48)</sup> “인생은 金石이 아니거늘, 어찌 금석처럼 장수하길 바랄 수 있으랴”는 인간의 짧은 삶에 대한 인식과 아쉬움을 노래한 것인데,<sup>49)</sup> 여기에는 생명을 연장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수명은 원래 자연에 비해 턱없이 짧았는데,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는 주어진 생명조차 온전히 보전할 수 없었기에 삶의 연장에 대한 소망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생명에 대한 인식은 곧 죽음에 대한 자각이기도 하므로, 이와 같은 자각은 당시의 鬼文化와 결합되어 지괴소설 창작에도 영향을 끼쳤다. 생명조차 보장받을 수 없었던 위진남북조 시기의 불안정한 사회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최소한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만큼은 누리고 싶었을 것이기에, 당시 사람들의 생사관과 삶에 대한 열망이 지괴소설에서 환혼하는 이야기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환혼 모티브의 人鬼의 사랑 이야기에는 생명 보존에 대한 소망과 자유로운 사랑에 대한 열망이 투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진남북조 시기 불교의 성행도 지괴소설 人鬼의 사랑 이야기에 영향을 끼쳤다. 이 시기 불교는 鬼文化와 함께 결합되어 대량의 귀신 전설의 발생과 전파에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예전 전설이 전파될 기회도 제공해 주어, 당시 유행하던 鬼 고사들은 지괴소설의 제재와 이야기를 풍부하게 해주었다고 한다.<sup>50)</sup> 이와 같은 당시의 사회 풍조로 인해 李劍國은 환혼 역시 불교의 영향을 받아 지괴소설 사랑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51)</sup>

이처럼 사후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복귀하는 환혼 모티브는 생명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과 당시 유행하던 종교 미신의 영향으로 위진남북조 시기 지괴소설 人鬼의 사랑 이야기에 직간접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환혼을 통한 사랑의 결실을 이룬 작품, 『搜神記』의 「河間郡男女」과 「王道平」, 『幽明錄』의 「賣胡粉女」와 「龐阿」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46) 朱春潔, 앞의 논문, 147쪽 참조.

47) 『幽明錄·樂安縣』, “故市經荒亂, 人民餓死, 枯骸填地 每至天陰將雨 輒聞呻吟嘆聲聒於耳.”

48) 『古詩十九首·生年不滿百』, “生年不滿百, 常懷千歲憂.”

(<https://baike.baidu.com/item/%E7%94%9F%E5%B9%B4%E4%B8%8D%E6%BB%A1%E7%99%BE/7752322?fr=aladdin>)

49) 『古詩十九首·回車駕言邁』, “人生非金石, 豈能長壽考.”

<https://baike.baidu.com/item/%E5%8F%A4%E8%AF%97%E5%8D%81%E4%B9%9D%E9%A6%96%C2%B7%E5%B9%E8%BD%A6%E9%A9%BE%E8%A8%80%E8%BF%88/1355256>

50) 李劍國, 앞의 책, 274쪽 참조.

51) 李劍國, 위의 책, 494쪽 참조.

## (1) 이승의 연인 - 저승에서 還魂 - 이승의 부부

還魂을 통한 人鬼의 사랑 이야기는 異域 공간의 사랑 이야기보다 남녀의 애정이 보다 두드러지게 묘사되었다. 환혼 유형 이야기는 대체로 다음의 3단계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첫 번째 남녀는 이승에서 정혼 했거나 연인관계다. 두 번째 헤어진 후 연인 중 한 사람이 죽는다. 세 번째 죽은 연인이 환혼하여 현실로 복귀해 두 사람은 부부가 된다. 이야기에 있어 환혼은 헤어진 남녀의 재회와 인연의 결말을 전환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秦始皇 때 長安人으로 王道平이라는 자가 있었다. 어린 시절 같은 마을에 唐叔偕의 딸이 있었는데 그녀의 아명은 父喻였다. 그녀는 용모와 자태가 모두 아름다웠고, 두 사람은 나중에 부부가 되기로 약속했다. 왕도평은 전쟁에 차출되어 南國까지 떠나 버렸고, 9년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았다. (당부유의) 부모는 부유가 장성하자 (다른 집안에서) 예물을 받아들이고 劉祥의 아내로 시집보내려고 했다. 그녀는 왕도평과의 약속을 중히 여겨 따르고 싶지 않았으나 부모의 결혼 압박은 피할 수 없어 시집갈 수밖에 없었다. 3년이 지났으나 (그녀는) 즐겁게 지내지 못하고 실의에 빠진 채 늘 도평만을 그리워했다. 억울함과 원통함이 날로 깊어져 우울해하다가 죽음에 이르렀다.<sup>52)</sup>

㉡ 晉武帝 때 河間郡의 어떤 남녀가 자신들의 뜻으로 서로 사랑하여 혼인하기로 약속했다. 얼마 뒤 남자는 종군했는데 여러 해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여자 집에서는 다시 딸을 시집보내려고 했다. 여자는 원하지 않았으나 부모가 강요하니 어쩔 수 없이 시집을 갔다. 얼마 뒤 그녀는 병들어 죽었다.<sup>53)</sup>

㉢ 부잣집에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를 매우 아끼고 사랑했다. 부잣집 도령이 시장에서 구경을 하다가 분을 팔고 있는 아리따운 아가씨를 보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도령은 마음을 전할 방법이 없어 분을 사는 것으로 그 마음을 표하고 있었다. 매일 시장에 분을 사러 가면서도 한마디 말도 건네지 못했다. 날이 지나자 아가씨는 이것을 매우 이상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다음날이 되자 도령에게 물었다. “도련님은 분을 사서 어찌 사용하시는지요?” 도령이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감히 표현할 용기가 없었소. 하지만 항상 그대가 보고 싶어서 이런 방법으로 그대를 보러 갔던 것이요.”라 고백하니, 여인은 슬퍼하며 감동해 만날 것을 약속했다. 다음 날 저녁에 만나기로 했다. 그날 밤 도령은 방에 침상을 준비하고 여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해질녘이 되어 여인이 과연 도착하니 도령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 여인의 팔을 잡으며 “오랜 바람이 드디어 이루어졌군요.”라 말하며 기뻐 펄쩍펄쩍 뛰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sup>54)</sup>

52) 『搜神記·王道平』, “秦始皇時有王道平, 長安人也。少時, 與同村人唐叔偕女, 小名父喻, 容色俱美, 誓爲夫婦。尋王道平被差征伐, 落墮南國, 九年不歸。父母見女長成, 卽聘與劉祥爲妻。女與道平言誓甚重, 不肯改事。父母逼迫不免, 出嫁劉祥。經三年, 忽忽不樂, 常思道平, 忿怨之深, 悵悵而死。”

53) 『搜神記·河間郡男女』, “晉武帝世, 河間郡有男女私悅, 許相配適。尋而男從軍, 積年不歸, 女家更欲適之。女不願行, 父母逼之, 不得已而去。尋病死。”

54) 『幽明錄·賣胡粉女』, “有人家甚富, 止有一男, 寵恣過常。游市, 見一女子美麗, 賣胡粉。愛之, 無有自達, 乃托買粉。日往市, 得

㉠, ㉡, ㉢은 모두 이승에서의 인연을 묘사한 것이다. ㉠과 ㉡은 『搜神記』의 작품으로 이야기의 전개가 거의 유사하다. 두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에서는 “王道平과 唐父喩는 부부가 되기로 약속함 - 왕도평의 종군으로 9년간 헤어짐 - 당부유는 부모의 강요로 劉祥과 혼인한 후 죽음”, ㉡에서는 “河間郡의 남녀가 혼인을 약속함 - 남자의 종군으로 오랜 기간 헤어짐 - 여자가 부모의 강요로 다른 남자와 혼인한 후 죽음”으로 전개되고 있다. 죽음의 원인은 모두 여성 부모의 강요에 의한 혼인 때문이다. 병으로 죽었던 “억울함과 원통함이 날로 깊어져 우울해하다가” 죽었던 ㉠과 ㉡의 여자 주인공의 모습에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결정으로 혼인해야 했던 봉건사회 여성의 모습과 혼인풍속에 대한 반감이 동시에 투사되어 있다. 당시 여성들의 경우라면 혼인 후 남편과 시부모님께 순종하며 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죽음’은 강요받은 혼인에 대한 여성의 반항과 원한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은 『幽明錄』의 작품으로, 이야기에 등장한 남녀 주인공의 감정이 ㉠, ㉡에 비해 섬세하고 현실적으로 묘사되었다. 시장에서 분을 팔고 있는 여자를 우연히 보게 된 후 남자는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마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매일 분을 사러 가는 남성의 모습이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생생할 뿐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 여성에 대한 남성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다가 “항상 그대가 보고 싶어서 이런 방법으로 그대를 보러 갔던 것이오”라고 용기 내어 고백하는 모습 역시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 선명하게 묘사되었다. 자신의 의지로 연인을 선택했다는 점은 ㉠, ㉡, ㉢이 모두 같지만 ㉢에서는 두 남녀의 감정을 섬세하게 서술하고 있어 ㉠과 ㉡ 보다 현실성이 훨씬 농후하다. 하지만 ㉢에서 남자의 죽음은 너무 갑작스럽다. 남자의 종군과 강요된 혼인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 ㉡과 달리 사모하던 여자를 만난 기쁨으로 갑자기 남자가 죽었기 때문이다. ㉢에서 죽음을 맞이한 대상이 남성이라는 점도 특이하다. 대부분의 人鬼의 사랑 이야기에서는 환혼의 대상이 여성이기 때문이다.

㉠ 그녀가 죽은 지 3년이 지나고서야 왕도평은 집으로 돌아왔다……1) 왕도평은 이웃 사람의 안내로 당부유의 무덤을 찾아갔다. 도평은 슬피 소리를 지르며 목메어 울었다. 그녀의 이름을 3차례 부르더니 무덤을 돌며 슬픔을 가누지 못했다. 도평은 그녀를 축원하며 말했다. “나는 그대와 부부가 되길 약속하며 종신토록 함께하자 했었지요. 나라에서 나를 차출해 그 먼 곳까지 보내 버릴 줄을 어찌 알았으며, 부모가 그대를 유상에게 시집보낼 줄을 또 어찌 알았으리오? 이미 우리 두 사람의 처음 약속은 지키지 못하고 생사라는 서로 다른 길로 들어섰으니 영원한 이별이구료! 하나 그대에게 영원한 혼이 있다면 내가 살아생전의 당신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구료. 만약 신령한 혼이 없다면 이것으로 우리는 영원히 이별이구료!” 말을 마치고는 다시 슬피 울었다. 2) 머뭇거리는데 사이에 부유의 혼이 무덤 밖으로 나와 왕도평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오신 것이기에 그리 오래도록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당신과 부부되기로 약속하며 그 맹세 종신토록 지키려 했으나 부모님께서 혼인을 강요하시니 유상에게 시집갈 수밖에 없었고,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조석으로 당신을 그리워하다 한이 맺혀 죽게 되어 이

粉便去，初無所言。積漸久，女深疑之。明日復來，問曰：「君賣此粉，將欲何施？」，「意相愛樂，不敢自達，然恒欲相見，故假此以觀姿耳！」女悵然有感，乃相許以私，克以明夕。其夜，安寢堂屋，以俟女來。薄暮果到，男不勝其悅，把臂曰：「宿願始伸於此！」歡踊遂死。”

제 저승세계에 있으니, 우리는 이제 서로 다른 세상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에 대한 마음은 깊고 깊어 지금도 떨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당신께서 다시 서로 위로함을 간절히 구하시니 아직 제 육신이 썩지 않아 소생해 다시 당신과 부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서 무덤 문을 열고 관을 깨뜨려 버려 주시면 소녀 소생해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2) 왕도평은 자세히 말을 듣고 무덤 문을 열고 그녀를 어루만졌더니, 과연 그녀가 다시 살아났다. 이에 부유는 몸을 추스르고 도평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다. 전남편 유상이 이 놀랍고 괴이한 이야기를 듣고 관아에 고발했다. 이에 관아에서는 법률로 판결하려 했지만 이와 관련된 판결 조문이 없어 왕에게 이 일을 上奏했다. 3) 왕은 당부유를 왕도평의 아내로 판결 내렸고, 두 사람은 130세까지 살았다.<sup>55)</sup>

㉠ 1) 여자의 무덤에 가 울며 자신의 슬픔을 다 쏟아내었지만 그 정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 2) 결국 무덤을 파 관을 여니 여자가 다시 소생했다. 이에 여자를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왔다. 수일 동안 보살폈더니 여자는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다. 나중에 여자의 남편이 이 소문을 듣고 가서 여자를 돌려보내라고 했다. ……서로 소송을 했다. 군현의 관리들은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서 廷尉에게 심판해달라고 했다. 3) 祕書郎王道가 주청했다. “정성이 지극하여 천지가 감동해 여자가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것입니다. 이는 보통 일이 아니니 일반적인 예로 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무덤을 파던 자에게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sup>56)</sup>

㉠과 ㉡의 밑줄 친 1)-2)-3)은 대부분 유사한 내용이다. ㉡이 ㉠보다 간결하게 서술되어 있는 점만 차이가 날 뿐이기에 두 이야기를 함께 이해해볼 수 있다. 죽은 연인의 소식을 들은 남성은 여성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도하고, 남성의 진심을 들은 여성은 무덤 밖으로 나와 두 사람은 재회한다. 바로 여성의 환혼을 통해 이루어진 연인의 두 번째 만남이다. 처음 인연을 시작할 때 남녀는 혼인을 약속했지만 오랜 헤어짐과 강요된 혼인으로 죽음에 의해 이별을 한다. 사후세계로 건너 가버린 여성과 현실 세계의 남성은 더 이상을 인연을 이어갈 수가 없다. 때문에 환혼은 이들의 재회에는 꼭 필요한 장치라 할 수 있다. 환혼에는 위진남북 조 시기의 사회풍조와 생명 연장을 바라는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위 이야기에서 환혼 모티브는 두 사람의 사랑에 전환점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인의 죽음을 마추한 남성은 ㉡의 도령처럼 여성에게 자신들의 진심을 토로하였다. 이미 죽어 타계로 떠나 버린 연인이지만 “우리 두 사람의 처음 약속은 지키지 못하고 생사라는 서로 다른 길로 들어섰으니 영원

55) 『搜神記·王道平』, “死經三年, 平還家……隣人引往墓所。平悲號哽咽, 三呼女名, 繞墓悲苦, 不能自止。平乃祝曰: 「我與汝立誓天地, 保其終身。豈料官有牽纏, 致令乖隔, 使汝父母與劉祥。既不契于初心, 生死永訣。然汝有靈聖, 使我見汝生平之面; 若無神靈, 從茲而別。」言訖, 又復哀泣。遂巡, 其女魂自墓出, 問平: 「何處而來? 良久契闊。與君誓爲夫婦, 以結終身。父母強逼, 乃出聘劉祥, 已經三年。日夕憶君, 結恨致死, 乖隔幽途。然念君宿念不忘, 再求相慰, 妾身未損, 可以再生, 還爲夫婦。且速開冢破棺, 出我即活。」平審言, 乃啓墓門, 捫看其女, 果活, 乃結束隨平還家。其夫劉祥聞之驚怪, 申訴于州顯。檢律斷之, 無條, 乃錄狀奏王。王斷歸道平爲妻。壽一百三十歲。”

56) 『搜神記·河間郡男女』, “晉武帝世, 河間郡有男女私悅, 許相配適。尋而男從軍, 積年不歸, 女家更欲適之。女不願行, 父母逼之, 不得已而去。尋病死。其男戍還, 問女所在, 其家具說之。乃至冢, 欲哭之盡哀, 而不勝其情。遂發冢開棺, 女即蘇活, 因負還家。將養數日, 平復如初。後夫聞, 乃往求之。其人不還……于是相訟。郡顯不能決, 以讞廷尉。祕書郎王導奏: 「以精誠之至, 感于天地, 故死而更生。此非常事, 不得以常禮斷之, 請還開冢者。」”

한 이별이구료! 허나 그대에게 영험한 혼이 있다면 내가 살아생전의 당신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구료”라며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전달하는 남성의 모습은 여성이 환혼하게 된 이유라 할 수 있다. 환혼으로 다시 만나게 된 남녀는 그들의 인연을 이어가려 하지만 여기에 걸림돌이 있다. 사후세계에서 돌아온 여성은 다시 현실 세계의 벽을 마주해야 했기 때문이다. ㉠, ㉡과 이야기의 흐름은 다르지만, 도령의 죽음으로 끝나버린 두 남녀의 사랑도 환혼을 통해 전환점을 맞이한다.

㉡ 여자는 두렵고 놀란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 자리에서 도망갔고 이튿날 분 가게로 되돌아왔다.……발인 날이 되자 상자 안에서 크기가 똑같이 포장되어 쌓여있는 분 100여 개를 발견하고 도령의 어머니는 “내 아들을 죽인 자는 분명히 이 여자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도령의 어머니는 시장에서 분을 팔고 있는 가게를 돌며 분을 샀다.……관아에서 재판을 받을 때 여자는 “소녀가 어찌 더이상 목숨을 애석히 여기겠습니까? 청컨대 죽기 전에 시신 앞에 가 실컷 울게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니 현령이 허락했다. 1) 여인은 바로 도령의 집으로 가서 시신을 어루만지며 통곡하며 “불행히도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군요. 만약 죽은 후에 영혼이 있다면 죽는다고 해도 무슨 원망을 하겠는지요?”라고 하였더니 2) 도령이 갑자기 눈을 활짝 뜨며 다시 살아났다. 청년은 사람들에게 사실을 모두 설명했고, 이후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자손을 많이 두었다.<sup>57)</sup>

㉡의 1), 2)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분 파는 아가씨도 ㉠, ㉡의 남성처럼 도령의 시신 앞에서 통곡하며 애도하여, 남성의 영혼을 불러들인다. 죽어 사후세계로 갔던 ㉠, ㉡, ㉢의 주인공들은 현실 세계에 대한 미련, 즉 연인과 행복한 결실을 맺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연인의 진심 어린 말에 반응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환혼으로 이루어진 남녀의 사랑 이야기에는 앞에서 살펴본 이역에서의 人鬼의 사랑 이야기보다 남녀의 애정이 강렬하게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생전에 연인이었던 두 남녀의 사랑은 죽음과 환혼을 통해 더욱 견고해져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 세계의 새로운 장벽은 남녀의 사랑을 행복한 결실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 ㉡의 3)에 따르면 남녀는 나라의 판결에 의해 정식적인 부부가 되었다. 원래 여성은 다른 남자의 아내였기에 환혼해 현실 세계로 돌아왔다면 전남편의 아내로 생활해야 한다. 그것이 고대 중국의 가정윤리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서는 법률적 판결로, ㉡에서는 천지가 감동할 만큼 특별한 일이라는 이유를 들어 나라에서 환혼으로 재회한 두 남녀의 사랑을 인정하였다.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환혼을 통한 人鬼의 사랑으로 서술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유연애와 혼인을 갈망하던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에서는 극복해야 할 또 다른 현실적 장벽이 있었다. 도령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여성은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에 빠졌기 때문이다. 살인죄라는 누명을 쓰게 된 여성은 억울하지만 해결 방법이 없기에 남성의 시신 앞에서 목놓아 통곡을 한다. 현실 세계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사후세계에서라도 이룰 수 있다면 원망

57) 『幽明錄·賣胡粉女』, “女惶懼。不知所以, 因遁去, 明還粉店。……當就殯斂。發篋笥中, 見百餘裹胡粉, 大小一積。其母曰: 「殺吾兒者, 必此粉也。」入市遍買胡粉。……女曰: 「妾豈復恠死? 乞一臨尸盡哀。」縣令許焉。徑往撫之慟哭, 曰: 「不幸致此, 若死魂而靈, 復何恨哉?」男豁然更生, 具說情狀, 遂爲夫婦, 子孫繁茂。”

하지 않겠다는 여성의 모습은 애절하기까지 하다. 역을함과 죽은 연인에 대한 마음이 시신 앞에서 울고 있는 여성 모습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 안타깝다. 그런데 남성이 죽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여성과 부부가 될 수 있었을까? 시장에서 분을 팔던 여성은 쉽게 말해 소자본 상인이라 할 수 있고,<sup>58)</sup> 남성은 부잣집 도령이라고만 하였으니 남녀 모두 평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돈 많은 집 남자 집에서 분을 팔며 생계를 유지하는 여성을 아들의 배필로 허락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때문에 이들에게도 환혼은 행복한 결실을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봉건 질서의 사회풍조와 혼인풍속은 자유로운 사랑과 혼인을 갈망하는 당시 사람들의 상상을 통해 人鬼의 사랑 이야기로 표출되었다. 환혼 모티브는 위진남북조 시기 생명에 대한 인식과 鬼文化를 비롯한 당시의 사회 풍조의 영향으로 지괴소설 人鬼의 사랑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환혼을 통해 이루어진 人鬼의 사랑 이야기는 남녀의 애절한 사랑이 중심 내용으로 서술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자유로운 사랑과 혼인에 대한 갈망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幽明錄·賣胡粉女』는 『搜神記』의 「王道平」과 「河間郡男女」에 비해 남녀 사이의 사랑이 보다 생생하고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당시 사람들의 애정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와 소망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2) 외사랑 - 離魂 - 이승의 부부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어느 쪽의 사랑이 더 깊은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幽明錄·龐阿』에서는 외사랑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묘사되었다. 여기에서는 龐阿에 대한 거의 일방적인 사랑을 石氏 딸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龐阿는 외모와 의용이 빼어난 사람이다. 같은 마을에 사는 石氏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일찍이 집 안에서 그를 보고 사랑에 빠졌다. 얼마 후 방아는 석씨 딸이 자기를 찾아온 것을 보았다. 방아의 아내는 투기가 심한 여인으로, 이 사실을 알고 여종에게 석씨 딸을 포박해 그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다. 그런데 도중에 석씨 딸은 한 줄기 연기로 변해 사라져버렸다. 여종이 바로 석씨 집에 이 사실을 알렸더니, 그 아버지가 크게 놀라며 말했다. “내 딸은 문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어찌 이렇게 사람을 헐뜯는다 말시오!” 방아의 아내는 더욱 경계하며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집에 석씨 딸이 와 있는 것을 보고 직접 그녀를 묶어서 석씨 집으로 데려갔다. 석씨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 눈을 휘둥그레 뜨며 말했다. “방금 내가 內室에서 나왔을 때 내 딸은 어미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거늘 어찌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바로 종들에게 딸을 불러오라고 했더니, 묶여있던 딸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석씨는 이것은 필시 기이한 일이라 여겨 아내를 시켜 어찌된 일인지 딸에게 물어 보라고 했다. 딸이 말했다. “예전 방아님이 대청에 계실 때 몰래 훔쳐본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부터 꿈으로 방아님을 뵈러 갔는데, 그 댁에 들어갔다가 그 아내에게 포박 당했던 것 같아요.” 석씨는 말했다. “어찌 세상에 이런 이상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네 혼령이 너도 모르는 사이에 방아 쪽으로 간 것이니 사라진 것도 그 혼령일 것이다.” 이후 석씨 딸은 다른 사람에게는 시집

58) 李劍國, 앞의 책, 494쪽 참조. 여기에서 분파는 아가씨의 신분을 소자본 상인이라 언급한 것을 참고했다.

가지 앓겠다고 맹세했다. 해가 지나자 방아의 아내는 갑자기 몹쓸 병에 걸렸는데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다. 방아가 석씨 집에 납폐를 보내 석씨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sup>59)</sup>

이 이야기의 가장 큰 특징은 “한 줄기 연기로 변해 사라져버렸다”로 대표되는 ‘離魂’이라는 모티브가 사용되고 있는 점이다. 離魂이란 어떤 목적을 위해 신체를 떠난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還魂과는 차이가 있지만 신체에서 분리되었던 영혼이 다시 돌아온다는 점이 유사하고, 환혼 모티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離魂을 통해 남녀의 사랑이 강렬하게 부각되었으므로 본고에서는 離魂을 還魂 모티브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방아를 본 첫눈에 사랑에 빠진 석씨 딸은 상대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으나 현실상 그럴 수가 없었다. 용기가 없어 고백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가로 막힌 벽이 높지만 상대를 향한 마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석씨 딸은 방아의 곁에 머무르기를 원한다. 현재에도 사람들은 돌아가신 친지가 그리울 때 꿈속에서라도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듯이, 석씨 딸은 그 소망을 실현하듯이 영혼 상태로 방아를 찾아갔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찾아갈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상대를 꿈에서라도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상대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離魂을 통해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환혼이 상대에 대한 애정을 통해 이루어졌듯이 방아에 대한 강렬한 사랑이 離魂을 통해 극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실 세계의 혼인풍속이 생전에 연인이었던 남녀의 사랑에 장애물이었다면 석씨 딸은 더 큰 장애를 넘어야 했다. 윤리 도덕에 어긋나는 기혼자와의 사랑은 현재에도 절대로 용서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혼자와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離魂을 통해 석씨 딸의 깊은 애정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 우선 방아에게 아내가 있다는 점과 부모의 허락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석씨 딸은 봉건사회의 전형적인 여성과는 달리 자신의 사랑에 대담하고 적극적이다. 그래서 離魂은 석씨 딸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방아의 아내는 질투가 많고 婦德이 부족한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어, 그녀 역시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전형적인 여성상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三從四德은 봉건사회 여성의 필수적인 요건이었는데, 방아의 아내는 봉건사회가 요구하는 전형적인 여성상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七出 중 하나인 질투가 심한 여성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방아를 사이에 둔 두 여성의 갈등은 석씨 딸의 離魂을 통해 반복된다. 집으로 찾아오는 석씨 딸을 매번 포박해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직접 여자의 집을 찾아 으름장도 놓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포박해 온 여자는 영혼일 뿐이니 그때마다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방아 아내의 죽음으로 두 여성의 갈등이 마무리된다.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지만 석씨 딸의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건이기도

59) 『幽明錄·龐阿』, “有龐兒者, 美容儀。同郡石氏有女, 曾內賭阿, 必悅之。未幾, 阿見此女來詣阿。阿妻極妬, 聞之, 使婢縛之, 送還石家, 中路遂化爲煙氣而滅。婢乃直詣石家說此事, 石氏之父大驚曰: 「我女都不出門, 豈可毀謗如此!」阿婦自是常加意伺察之, 居一夜, 方值女在齋中, 乃自拘執, 以詣石氏, 石氏父見之愕眙, 曰: 「我適從內來, 見女與母共作, 何得在此?」即令婢僕於內喚女出, 向所縛者奄然滅焉。父疑有異, 故遣其母詰之。女曰: 「昔年龐阿來廳中, 曾竊視之。自爾仿佛即夢詣阿, 及入戶即爲妻所縛。」石曰: 「天下遂有如此奇事! 夫精情所感, 靈神爲之冥者, 滅者蓋其魂神也。」即而女誓心不嫁。經年, 阿妻忽得邪病, 醫藥無徵, 阿乃授幣石氏女爲妻。”

하다. 방아의 아내가 만약 봉건사회의 전형적인 여성으로 묘사되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방아 아내의 죽음과 석씨 딸의 해피엔딩에 사람들은 아마 공감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때문에 방아 아내의 형상 역시 이야기 전개에 필수적인 요소였다고 할 수 있다.

딸이 기혼남을 사랑해 다른 사람과는 절대 혼인하지 않으려 한다면 부모는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석씨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네 혼령이 너도 모르는 사이에 방아 쪽으로 간 것이니 사라진 것도 그 혼령일 것이다”라 말하며 딸의 결심을 받아들인다. “어찌 이런 이상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한 석씨의 말처럼 그는 離魂이라는 기이한 현상으로 인해 딸의 사랑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앞 절 ㉠과 ㉡에서 판결로 환혼에 의한 사랑을 인정했듯이, 또 ㉢에서 환혼으로 여성의 무죄와 남성의 애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듯이 석씨 딸도 離魂으로 자신의 외사랑을 부모에게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허락으로 성사될 수밖에 없던 사회현실을 고려한다면 석씨 딸은 혼인을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게 된 것이니, 이것은 현실 세계의 상황과는 상반된다. 부모와 매파의 중매로 성사되었던 당시 혼인풍속과 상대가 기혼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실 세계에서 석씨 딸의 사랑은 그야말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離魂 방식은 도덕 윤리 같은 기존의 틀을 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석씨 딸은 離魂을 통해 방아에게 자신의 외사랑을 전달했을 뿐 아니라 도덕 윤리의 틀과 부모 허락이라는 관문도 넘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離魂’은 앞에서 살펴본 환혼을 통한 人鬼의 사랑 이야기에서처럼 남녀의 절실한 사랑과 혼인을 위한 장애를 극복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중심 모티브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환혼 유형의 人鬼의 사랑 이야기에는 부모의 명으로 이행되었던 당시의 혼인풍속에 대한 반항 정신과 자유연애와 혼인을 갈망하던 위진남북조 시기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 IV. 나가는 글

『搜神記』와 『幽明錄』은 魏晉南北朝 시기를 대표하는 志怪小說의 秀作이다. 그러므로 두 작품의 ‘人鬼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이 시기의 사회풍조와 당시 사람들의 심리를 살펴보았다. 위진남북조 시기의 종교 미신과 鬼文化의 유행은 鬼 고사가 대량으로 출현하게 된 원인으로,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은 人鬼의 사랑 이야기 발전에도 영향을 주었다. 당시 지괴소설의 저자들은 동란으로 인한 불안정한 사회정치와 참담한 현실에 대한 불만을 鬼 고사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였다. 출세와 애정 문제는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 시기 지괴소설을 통해 다양하게 서술되었다. 또 사랑과 혼인은 사람들의 이상과 소망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주제이므로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했던 자유연애와 혼인에 대한 갈망은 人鬼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표출되었다. 人鬼의 사랑 이야기는 鬼를 인간과 밀접한 존재로 부각시켜 당시의 사회 현실과 생활을 재조명하였기 때문에 현실성과 시대적 특징이 人神 사이의 사랑 이야기보다 훨씬 풍부하다. 그러므로 위진남북조 시기의 人鬼의 사랑 이야기는 현실성과 시대적 특징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우연한 만남 - 異域에서의 혼인 - 현실로 복귀한 남성의 출세’로 전개되는 人鬼의 사랑 이야기에는 문벌귀족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이 반영되었다. 이와 관련된 작품 『搜神記』의 「駙馬都尉」, 「崔少府墓」, 「漢談生」, 「紫玉」을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해 위진남북조 시기의 사회 풍조와 사람들의 소망을 살펴 보았다. 우연히 만나거나 혹은 정혼했던 인연으로 부부가 되는 女鬼와 남성은 모두 신분 높은 여성과 평범한 남성이라는 공통된 모티브가 있었다. 현실 세계라면 도저히 실현 불가능했을 신분 차이 나는 남녀의 인연이 人鬼를 통해 표출된 것은 신분 차이로 빚어지는 불합리한 사회현실에 대한 풍자인 동시에 혼인을 통한 신분 상승을 꿈꾸던 당시 사람들의 욕망이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생전의 연인 - 죽음과 還魂 - 현실에서 이루어진 사랑’으로 전개되는 人鬼의 사랑 이야기에는 자유연애와 혼인에 대한 갈망이 반영되었다. ‘환혼’ 모티브는 생명에 대한 사람들의 소망과 당시 유행하던 종교 미신의 영향으로 위진남북조 시기 지괴소설 人鬼의 사랑 이야기에 직간접으로 활용되었다. 환혼을 통한 사랑의 결실을 이룬 작품 『搜神記』의 「河間郡男女」과 「王道平」, 『幽明錄』의 「賣胡粉女」와 「龐阿」를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해 당시의 사회 풍조와 애정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살펴보았다. 봉건 질서의 사회풍조와 혼인풍속은 자유로운 사랑과 혼인을 갈망하는 당시 사람들의 상상을 통해 人鬼의 사랑 이야기로 표출되었다. 환혼 모티브는 위진남북조 시기 생명에 대한 인식과 鬼文化를 비롯한 당시의 사회 풍조의 영향으로 지괴소설 人鬼의 사랑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환혼을 통해 이루어진 人鬼의 사랑 이야기는 남녀의 애절한 사랑이 중심 내용으로 서술되었다. 『幽明錄·賣胡粉女』는 『搜神記』 작품보다 상대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섬세하고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현실성이 풍부하다. 『幽明錄·龐阿』에 등장한 離魂 모티브 역시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상대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활용되었으므로, 본고에서는 환혼 유형 이야기와 함께 살펴보았다. 죽음으로 야기된 영혼의 복귀가 아니라 외사랑으로 비롯된 영혼의 분리이므로 이것은 방아에 대한 강렬한 사랑이 離魂을 통해 극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 〈參考文獻〉

### 국문

- 황패강, 『한국서사문학연구』,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1972.  
劉義慶(撰), 張貞海(譯), 『幽明錄』, 서울: 살림, 2000.  
干寶(撰), 林東錫(譯), 『搜神記』, 서울: 동서문화사, 2020.

- 이인경, 「『幽明錄』의 사랑·혼인 관련 이야기에 반영된 육조시기 사회풍조와 여성형상」, 『東洋學』 64, 2016.  
이인경, 「魏晉南北朝 志怪小説 속 ‘仙境’ 이미지와 예술적 성취 - 仙境 유람 유형 志怪小説을 중심으로 -」, 『中國文學研究』 68, 2017.  
이인경, 「『幽明錄』 ‘鬼’ 故事를 통해 살펴본 반영된 육조시기 사회풍조와 鬼文化」, 『東洋學』 77, 2019.

## 중문

- (南朝宋)劉義慶, 鄺晚晴輯注, 『幽明錄』,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88.
- 葛洪 撰, 『抱朴子』,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 張振軍, 『傳統小說與中國文化』, 廣西: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6.
- 李學勤 主編, 『禮記正義(十三經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 魯迅 撰, 『中國小說史略』,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 臧克和 外 校訂, 『說文解字新訂』, 北京: 中華書局, 2002.
- 李劍國, 『唐前志怪小說史』,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1.
- [晉]干寶·陶潛 撰, 曹光甫 王根林 校點, 『搜神記·搜神後記』,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2.
- [漢]鄭玄 注, [唐]賈公彥 疏, 『周禮注疏』,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8.
- (漢)王充 張宗祥 校注, 鄺紹昌 校點, 『論衡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8.
- 金官布, 『鬼文化視野中的唐前志怪小說』, 北京: 人民出版社, 2018.
- [清]孫詒讓 撰, 『墨子閒詁』, 北京: 中華書局, 2019.

- 謝明勳, 「六朝志怪“冥婚”故事研究 - 以“搜神記”為中心考察」, 『東華漢學』 5, 2007.
- 甘忠寶, 「魏晉南北朝小說中的洞窟仙境意象」, 『重慶職業技術學院學報』 3, 2008.
- 李趙東, 「“搜神記”中的人鬼戀」, 『人文科學專輯』 34, 2008.
- 史豐, 「“搜神記”世界探索」, 『安康學院學報』 24, 2012.
- 林安任, 「“搜神記”中“人鬼婚戀”故事探析」, 『東華中文學報』 六, 2013.
- 王飛燕, 「唐前志怪小說愛情題材作品之類型與敘事特點」, 『中國人文科學』 61, 2015.

## 기타

- [https://so.gushiwen.org/mingju/juv\\_baf30723e1c6.aspx](https://so.gushiwen.org/mingju/juv_baf30723e1c6.aspx)
- <https://www.koolearn.com/shici/gj/zj-1347.html>
- <https://zhidao.baidu.com/question/144047238.html>
- <https://baike.baidu.com/item/%E7%94%9F%E5%B9%B4%E4%B8%8D%E6%BB%A1%E7%99%BE/7752322?fr=aladdin>
- <https://baike.baidu.com/item/%E5%8F%A4%E8%AF%97%E5%8D%81%E4%B9%9D%E9%A6%96%C2%B7%E5%9B%9E%E8%BD%A6%E9%A9%BE%E8%A8%80%E8%BF%88/1355256>

\* 이 논문은 2021년 8월 26일에 투고되어,  
2021년 9월 15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1년 10월 4일까지 심사하고,  
2021년 10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Ghost Culture and Society's Tendency During Wei Jin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Seen from Love Story of Human and Ghost

- Focused on "You Ming Lu(幽明錄)" "Sou Shen Ji(搜神記)" -

Lee, Inkyung\*

"Sou Shen Ji(搜神記)" and "Yu Ming Lu(幽明錄)" are representative novels of the Wei Jin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Therefore, through the love story of the ghost of human in the two works, we can understand the society's tendency of the Wei Jin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and the people's psychology at that time. The popularity of religious Superstition and ghost culture during the Wei Jin and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was the reason for the large number of ghost stories, and this social situation also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ghost love stories. The author of the novel tried to dispel complaints and social and political unrest and bleak reality through ghost stories. The stories are told in various novels about the period, as the issues of social success and love are also their main concerns. Since love and marriage are subjects that express people's ideals and desires in detail, free love and desire for marriage, which are impossible in the real world, are revealed through love stories of ghosts.

The love story of the ghost, which unfolds as "a man who meets by chance - an exotic marriage - a man who returns to reality," reflects the desire to rise in status that is impossible in the aristocratic society of the family. The love story of the ghost of a human being, which unfolds as "lover-death and soul-realistic love," reflects the desire for free love and marriage.

**[Keywords]** love of human and ghost, marriage, Afterlife, revival, Ghost Culture

---

\* Non-tenure Track Assistant Professor, Dankook University